



최지만(템파베이 레이스)이 연장 12회 말 결승 솔로 홈런을 치고 홈으로 들어오며 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영웅 최지만, 12회 말 끝내기 홈런

양키스전 연장서 결승포
이틀 연속 홈런... 시즌 18호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28)이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힘을 실는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다.

최지만은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홈 경기 1-1로 맞선 연장 12회 말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 우월 끝내기 결승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선두 타자로 나선 최지만은 상대 팀 바뀐 투수 코리 기어린을 상대로

볼 카운트2볼 2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36km의 낮은 슬라이더를 건어 올려 담장을 넘겼다.

템파베이는 최지만의 승리에 힘입어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단독 2위 자리를 지켰다.

최지만은 24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 경기에서도 0-4로 끌려가던 4회 스리런 홈런, 6회 켄지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끝내기홈런을 폭발하며 맹활약했다.

최지만이 끝내기 홈런을 기록한 건 개인 통산 두 번째다. 2018년 9월 11일 클리블랜드전 이후 1년 만에 제대로 손맛을 봤다.

2016년 빅리그에 데뷔한 최지만은 올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 홈런 18개는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이다.

최지만은 이날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1회 말 2사 2, 3루 기회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0-1로 뒤진 4회 두 번째 타석에선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고, 6회 세 번째 타석 2사 1루 기회에선 볼넷을 골라 출루했다.

1-1로 맞선 9회엔 선두타자로 나섰다 1루 땅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마지막 타석에서 '한방'을 터뜨리며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제주 메이커 체험축제’ 이번주 개막

렛츠런파크 28일부터 나흘간
행사·체험 프로그램 다양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는 오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말 4일간 렛츠런파크 일원에서 '2019년 제주 메이커 체험축제'를 개최한다. '메이커'는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상하고 개발하는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렛츠런파크 제주와 사회적기업협의회, 서귀포스타트업베이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최초로 제주의

숨은 창업 메이커 기업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체험·전시·공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창의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다. 축제에서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50개 제주 창업 기업들이 참여해 60여 가지가 넘는 행사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드론·가상현실·3D 프린터·코딩 등 4차 산업 신기술과 스마트 토이, 말산업, 로컬푸드 등 주제별로 전시 판매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화장품 만들기,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어린이 발명왕 선발대회와 창업 상담 코너도 함께 열린다.

표성준기자

렛츠런파크 10월 64경주 시행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는 10월 경마시행계획을 25일 발표했다.

10월 한 달 동안에는 주 8일간 64개의 제주시행 경주가 펼쳐지며, 이 가운데 40개 경주가 서울과 부산경남 경마장으로 위성 중계된다.

금요경마는 제주시행 경주와 부산경남 중계 경주로 운영되며, 토요경마는 제주시행 경주와 서울 중계가 발매된다. 특히 10월 12일에는 렛츠런파크 제주 최고 상금이 걸린 제주 특별차지도지사배 클래식(제주마)과 오픈(한라마) 대상경주(경주상금 각 1.6억원)가 4, 5경주로 시행돼 고객들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표성준기자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접수 마감 임박

11월 10일 조천운동장~월정리 해안도로 왕복 코스
5km·10km·하프코스·풀코스·클럽대항전 다양한 시상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이 27일 마감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감귤마라톤은 제주특산물인 감귤 홍보와 소비 촉진, 관광객 유입과 마라톤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한마당 잔치로 펼쳐진다. 매년 5000명 안팎의 국내외 달림이들이 참가하고 있는 감귤마라톤은 오는 11월 10일 조천운동장~월정리 해안도로 왕복 코스에서 열린다.

대회는 마스터스 부문(동호인·일반부 개인전)에서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로 나뉘어 진행된다.

풀코스 1-5위와 하프·10km 1-3위에는 트로피와 부상을 시상하고, 완주자에게는 종목별로 완주 펜던트와 완주메달·기록증과 함께 기념품을 제공한다.

단체(풀코스)대항전은 지역·직장·기관·동호인 클럽 등이 남녀 구분 없이 팀당 5-7명으로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다. 풀·하프·10km 각 종목별 시상제를 제외하고, 연령대별(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1위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특별시상으로 3인 이상 가족 중

선착순 10가족에게 가족화합상으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올해 17회째 대회를 맞아 풀·하프·10km 각 부문별 남녀 17등 완주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마스터스 부문 풀코스 남녀 각 1위와 클럽대항전 참가자 중 최고기록자를 포함해 총 3명에게는 일본 아오모리현 애플마라톤 무료 참가권도 제공한다.

참가는 감귤마라톤 홈페이지(<http://marathon.ihalla.com>)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조직위원회 사무국에 전화(064-750-2523·2291)로 문의하면 된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유나이티드, 포항에 1-2패... 꼴찌 위기

인천 경기 결과 강등 판가름

지난 21일 성남을 3-0으로 완파했던 제주유나이티드가 포항 원정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하면서 다시 강등권 추락 위기에 처했다.

제주는 24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3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이날 경기에서 지난 30라운드 성남전과 똑같은 선발라인업을 가동한 제주는 이근호와 서진수를 투톱으로 내세우고, 측면과 2선에는 윤일록·윤빛가람·이창민·김성주를 배치했다. 포백 수비 라인에는 김지은·백동규·김

동우·안현범이 지켰으며, 골문은 오승훈이 막아섰다.

경기 초반부터 여러 차례 슈팅을 허용하고 오승훈 골키퍼의 선방으로 실점 위기를 넘긴 제주는 전반 30분 서진수를 빼고 마그노를 교체 투입하며 빠르게 승부수를 던졌다. 이후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가던 제주는 후반 4분 이근호가 날카로운 헤딩슛을 선보였지만 아쉽게 득점에는 실패했다. 제주는 후반 들어 교체된 일류현 코에게 후반 13분 헤더 실점을 허용하고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후반 45분 일류현코에게 추가 실점을 내줬다. 경기 종료로 앞두고 마그노가 페

널티킥을 얻어낸 뒤 키퍼로 나선 윤일록이 골로 성공시켰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패배로 제주는 4승10무17패(승점 22점)에 그쳐 인천(승점 21점)을 간발의 차로 앞선 11위를 유지했으며, 25일 예정된 인천-상주 경기 결과에 따라 최하위 추락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진출팀을 결정하는 상위 그룹(1-6위)과 강등팀을 가리는 하위 그룹(7-12)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스플릿 라운드까지 제주는 2 경기를 남기고 있는 반면 인천은 3 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표성준기자

제주 권순형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

제주Utd서 181 경기 소화

제주유나이티드의 권순형(33·사진)이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의 금자탑을 쌓았다.

권순형은 24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3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21분 이근호를 대신해 교체 투입돼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1년 12월 강원 FC에서 제주로 이적한 권순형은 이후 제주 유니폼만 입고 무려 181경기를 소화

했다. 이는 제주 역대 선수 출전 기록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면서 현재 제주 소속 선수 중 가장 많은 출전 기록이며, 아직도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제주 경력 선수 중에서는 오반석(198경기)에 이어 2위이다.

제주에서만 12골 21도움을 기록 중인 권순형은 현재 제주 역대 선수 도움 순위 8위도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8개 도움만 기록하면 1위 윤정환(28개)의 아성을 넘어설 수 있지만 권순형은 팀을 먼저 생각하는 '팀퍼스트' 정신을 강조했다.

표성준기자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 토종 글로벌
나눔에너지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 토종기업 나눔에너지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